

신데렐라의 세계 이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를 통하여

양성현

모든 오래된 이야기의 낯익은 결말: “왕자와 공주는 사랑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015년, SBS의 30부작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이하 풍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귀족 집안의 장남 한인상(이준 분)과 서민 집안의 둘째 딸 서봄(고아성 분)의 아이가 태어나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극은 막을 연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미혼모 서봄이 만삭인 채 대궐 같은 한인상의 집으로 와 출산한다. 경악한 이준의 아버지 한정호(유준상 분)가 산모의 비을 감추기 위해 집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오페라 곡을 틀고, 어머니 최연희(유호정 분)가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동안 아이는 태어난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는 태어났으며 누구도 죽지 않았으니 남은 것은 각자의 자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나의 자리를 지켜 살아남기. 그것은 오늘날의 불안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다.

통속적 멜로드라마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욕구와 함께 호흡하는 장르였다. 갓 태어난 자본주의가 돈의 논리로 인간을 좌우하는 노골적인 형태의 체제를 유지할 때 멜로드라마는 태어났다. 자본주의의 태동은 종교와 봉건적 권위가 지배하던 그 이전 세계의 몰락을 동반했다. 서민들은 생존의 그물망 없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마저 상품화해 경쟁해야 하는 생소한 세계에 갑자기 내던져졌고, 바로 이 시기 멜로드라마가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약자의 편에 서기’는 멜로드라마의 판을 짤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풍문>이 본 홈페이지에서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 ‘갑과 갑의 싸움구경’ 등의 문구를 통해 밝히는 기획의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풍문>은 악을 징벌하기 위한 드라마가 아니며, 나아가 현대의 통속극이 손쉽게 자신을 위치시키는 절대악을 비판하는 자리로만 만족하지도 않는다.

3차원 좌표축의 직조, 여러 방향으로 작동하는 권력

<풍문> 내 현실의 좌표공간은 일직선이 아니다. <풍문>의 세계 속 좌표에는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높이가 있다. 모든 등장인물은 좌표 내에서 자신만의 길을 지닌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거나 떠나는 논리적인 이유로 행동한다. 만만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구도 역시 ‘선 대 악’(자본주의에 비판적인 풍으로 번역하자면 ‘서민 대 귀족’이 되기 쉽다)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만을 유지하지 않아, 처음에는 같은 편이던 인물들도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거나 연대한다. 극에 등장하는 그 어떤 관계도 연인, 가족, 동료, 과거 투쟁의 동지와 같은 단순하며 추상적인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다. 이런 집요하며 세심한 통찰의 틀에서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왕자와 신데렐라, 한인상과 서봄은 서로를 사랑한다. 서봄은 “너무 미안해도 싸우게 되나 봐”라고 말한다. 그러나 <풍문>의 세계는 동화 신데렐라의 세계와는 달라,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자본의 논리가 개입했을 때 사랑은 흔들린다. 한정호가 한인상에게 상속 조건을 제시한 뒤로 둘의 사이에는 금이 가고, 이는 서봄이 친정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계기가 된다. <풍문>은 계급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신화 이면의 현실적 상황과 욕망, 그로 빚어지는 갈등을 가시화한다. 두 사람은 기존의 맹목적으로 선한 연인의 틀에서 벗어나, 관객으

로 하여금 편안히 주인공에게 이입하게 하던 기존 통속극의 작동 방식을 교란한다.

한인상의 귀족 부모인 한정호와 최연희는 한인상과 서봄이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해 타파해야 할 적이다. 적어도 전통적인 도식에 의하면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민의 적 상류층'이라는 추상적 프레임에서 한 발 나아가, 뚜렷한 욕망과 결핍을 지닌 입체적 인물로 그려진다.

방송사 홈페이지 인물 소개란의 최연희 항목에 적힌 "품위를 잃으면 다 끝장이다"는 문장이 재미있다. 짧은 말 안에 권력이 작동하는 본질적 구조가 있다. 품위는 권력의 무기다. 실제로 부부의 위치는 동등하지 않고, 자식 세대가 느끼는 한정호의 가부장적이며 이기적인 태도의 불쾌함을 최연희도 느낀다. 부부간의 싸움은 코믹하게 그려져, 두 사람은 머리채를 쥐어뜯고 (탈모 증상이 있는 한정호는 절규한다) 바닥을 뒹군다.

하지만 둘은 이런 상태를 '아랫것'들에게는 티내지 않는다. 최연희는 한정호를 침대에서 내쫓고 잠자리를 따로 가질 때에도 자식들 앞에서는 빈틈없이 '내조'하는 아내 역을 연기하며 한정호에게 존댓말을 쓴다. 두 사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무엇보다 단단한 결속이다.

둘의 걸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은 상류층의 위선을 비웃기에 좋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논리정연하기에 관객은 마냥 조소하지는 못한다. 우스움 이면의 이입 가능한 사연, 마냥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악역들. 이 지점은 훌륭히 불편함을 유발한다. <풍문>은 웃음과 비판을 동시에 불러오며, 각각의 감정은 시청자에게 다면적으로 다가간다.

한정호의 캐릭터 표현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극중 권력 피라미드의 최고위 인물인 그의 연기 톤은 인물 중 가장 연극적이다. 우렁찬 발성으로 화려한 수사와 고무한 인용구를 뱉는 연기는 인물을 우습게 만든다. 그러나 그 말들은 실질적 힘을 지닌 말이기도 하다.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모니터 너머의 시청자를 웃게 만들어도 극중에서 한송의 사장인 그가 힘 있는 왕인 점은 변치 않으며, 시청자는 그 점을 잊을 수 없기에 마냥 편하게 웃지만은 못한다.

이런 왕의 곁에는 살아남기 위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다. 한정호는 집안의 고용인들과 회사 한송의 비서들을 가신이라는 신분사회의 용어로 부른다. 실제 계급은 서민이나 생활공간을 상류층과 공유하는 이들은 조선 시대의 마름, 미국 남부 농장의 흑인 집사, 유서깊은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 등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 왔다. 이들의 생활은 고용주와 그 흥망을 같이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태생적 좌표는 서민이지만 그들의 지갑 사정은 상류층과 함께하는 애매한 지점에 위치한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위치는 달라지며, 그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로와 연대하거나 혹은 서로에게 대항해 싸운다. 한정호의 최측근으로서 한송만을 위해 일하는 비서 양재화(길해연 분)와 한송에 의해 과거 노조원이었던 오빠가 희생된 비서 민주영(장소연 분)의 갈등이 좋은 예며, 두 인물의 선택은 마지막 순간 다른 인물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전형적 서민 가정인 서봄의 가족 역시 '가난하지만 선한' 인물들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한정호가 지속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돈은 서봄의 가족을 혼란에 빠뜨린다. 동생의 신분 상승 후, 서봄의 언니 서누리(공승연 분)는 질투와 부러움을 보이며 귀족 자제와의 결혼을 꿈꾸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 동생 서봄에게 질타받는다. 과욕을 부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동생마저 위협하게 만들 뻔한 서누리의 모습도, 그 앞에서 마치 한정호의 가신마냥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서봄의 모습도 '서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연상시키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선한 인물'과는 다른 결로 존재한다.

아버지 서형식(장현성 분)은 서봄의 이혼 선언 후 한때 자신의 것이 될 뻔 했으나 이제는 아니게 된 권력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한정호와 동일시하고, 그의 논리로 서봄을 다그친다. 과거

노조에 대한 한송의 위법행위 소송을 진행 중이던 삼촌 서철식(전석찬 분) 역시 이혼 소식 앞에서는 옳다고 믿었던 가치를 버리고 서봄을 타이른다. 실은 자신을 위한 욕망을 “너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태도는 너절하지만 또한 익숙한 것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밍다는 말이 있듯, 권력의 작동방식이 바뀌어도 권력에 기생하여 강한 편에 서약한 쪽을 억압하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나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통해 <풍문>은 같은 계급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다 같은 위치에 선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에도 권력의 위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약자, 자기를 연민하지 않는다

이처럼 입체적인 세계를 직조한 펜 끝은 예리하나, 그들을 보는 시선은 분명 온후하다. 약자가 무조건적인 선이 아닌 세계가 공들여 이야기된 이유는 약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서민 역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세계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다. 서봄의 투쟁이 그 역을 해낸다.

서봄은 굴러온 돌이다. 아들이 공주와 결혼해 남들과 다른 세계를 상속받고 지켜나갈 것을 기대했던 한인상의 부모에게는 쫓아내고 싶은 이질적 존재이며, 가족에게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 버린 사람으로서 기대, 부러움, 그리고 걱정을 한 몸에 받는 공주님이다. 한씨 집안 고용인들은 서봄을 작은 마님으로 부르지만, 그녀의 진짜 위치는 큰마님이자 진짜 마님으로 인정받는 최연희와는 다르기에 비서 이선숙(서정연 분)과도 기선 제압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봄이 절대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멜로드라마가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채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공에게의 이입이다. 악인에게 핍박받는 선한 인물상으로서의 주인공은 서민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로 기능한다. 전통적으로 통속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선한 의지가 있으나 현실의 힘이 없기에 고난을 겪는다. 고난 후 오는 결말은 권선징악의 형태를 취하며, 이 때 악인을 벌하는 것은 큰 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입의 대상인 주인공이 얻는 행복한 결말은 선한 의지에 대한 보답이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자연히(혹은 당연히) 오는 것이어야 한다. 멜로드라마는 이런 결말을 통해 위안을 전한다.

그러나 자기연민은 자기비판의 부재로 연결되곤 한다. 자신의 위치를 절대적 약자의 위치로 상정하면 자신 역시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기 쉬운 탓이다. 입체적 세계의 창조를 통해 이 함정을 한 번 넘은 <풍문>은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하여금 서사를 끌고 가게 함으로써 또 한 번 함정을 훌륭하게 뛰어넘는다.

서봄은 계급을 규정하는 태생의 차이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서봄이 한인상에게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느냐고 물어보자 한인상은 그저 태어나 보니 이랬다고 답한다. 더할 필요도 덜 필요도 없는 답이며, 서봄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서봄은 앞을 향해 간다. 삶의 관문들을 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의를 잃지 않으며 기죽지도 않는다. 그녀는 매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품위다. 그 강함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한송에 대항한 더 큰 연대와 투쟁을 이끌어낸다.

세 번의 싸움, 변화와 연대

서봄의 싸움은 크게 세 번으로 나뉜다. 첫 번째 투쟁은 신분이 다른 왕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정호와 최연희는 굴러온 돌이 빚어낸 풍파를 조용히, 권력의 근간인 ‘품위’를 지키며 처리하려 애쓴다. 그들은 수준이 맞지 않는 서봄을 쫓아낼 궁리를 하면서도 본인 앞에서

는 “워딩에 신경써”,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돌파구가 있다. 한인상과 서봄은 강자의 무기인 법을 역으로 이용해 ‘법적으로 하자 없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풍문이 퍼질 것을 두려워한 한정호와 최연희는 도리 없이 둘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후, 서봄은 편입된 세계에서 싸우며 성장한다. 서봄은 집안에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모든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반쯤 귀족이 된 서봄은 이제 그 세계의 일원이 아닌 비서, 그리고 친언니와 같등하며 성장한다. 이 싸움은 서봄의 세계가 한인상과 그 부모 이상으로 확장되어 그 자신이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다. 서봄은 자신이 이용했던 권력이 그것이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빌린 것임을 깨닫고 반성한다.

이제 세 번째 싸움은 서봄만의 싸움이 아닌 모든 인물들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고용인들의 최초의 파업을 계기로, 서봄은 한인상과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인상 역시 최종적으로는 과외생생의 도움으로 집을 나와 서봄과 동거하며, 고용인들 역시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최연희는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고 한정호는 새로운 고용인들과 집에 남겨진다. 그는 여전히 한송의 왕이나 넓은 집에 남겨진 그의 크기는 아주 작아, 완전히 혼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더 높은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그 다음엔 그 세계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서봄은 싸웠고 마지막으로 그 곳을 나와 더 옳은 길을 찾기 위한 것으로 싸움의 목적이 바뀌었다. 서봄은 비극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관계맺을 줄 아는 독립적 주체다. 서봄은 대상으로서의 수동적 공주이기를 거부하며, 최종 변화를 통해 다른 이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결말, 시청자의 선택을 기다리기

모든 작품은 시대와 영합한다. <풍문>을 통해 세계가 자본가와 노동자, 강자와 약자 식의 이분법적 구도로 해석되는 시대를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권력의 층위에서 늘 강자와 약자가 존재는 것은 분명하나, 말했듯 세계의 좌표는 일직선이 아닌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약자 역시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할 가능성을 내재한다.

특정 인물의 절대적인 선함을 상정하고 옹호하며 피해자의 위치에 두는 방식으로는 이 점을 비판하기 어렵다. 바로 그 점에서 <풍문>이 취한 전략이 멋지다.

서봄은 자신의 비극에 도취되지 않는다. 그녀의 이성적이며 예의바른 태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의 비극에 도취될 기회도 차단한다. 방영 당시 시청자들의 반응이 증거다. 많은 시청자가 강자 포지션에 손쉽게 이입해 ‘건방지고 예의 없는’ 서봄을 비난했다. 극의 끝에서 유일하게 원한 것을 이루지 못한 한정호와 최연희만이 불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승자보다는 패자에, 행복보다는 불행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편이 편안하다. 자신을 연민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풍문>이 시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닌 시대와 발맞추는 드라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시청자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것을 요구받는다.

만약 이 전통을 거부한 이야기가 위안이라는 가치를 비껴가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이입하는 지점에 있다.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강자를 주인공으로 두고 이입한다면 <풍문>은 분노할 만한 비극적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고되고 불안한 불경기, 시청자들에게 <풍문>이 보여 준 것은 나의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세밀하게 짜인 세계 너머에서, 약자도 인

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싸우는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풍문이 전해진다. 멜로드라마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치가 '한 줄기 빛'이라면, 그 빛은 이제 무조건적인 위안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막이 내린 뒤 관객이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 문득 돌아보고 신뢰할 만한 빛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풍문으로 들었소>는 흔들리지 않는 빛을 전하는 훌륭한 멜로 드라마가 되었다. 빛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전적으로 시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